

# “몸이 견딜 수 있을 만큼만 마셔라”

피에르 푸케 · 마르틴 드 보르드의 《술의 역사》를 읽고

정진환 | 서울와인스쿨 수석컨설턴트

“인간의 오욕칠정을 평상시보다 높게 끌어올려 인간다움의 극대화된 표현을 가능케 한 술. 심지어는 영화와 만화, 그리고 미디어에까지 영향력을 미친 알코올로그래피야말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느껴왔던, 술이 우리의 일상에서 존재하는 형식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정승희 옮김  
한길사/A5/176면/7000원

최근 몇 년 동안 술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음주인구에 비하면 아직 모자라고 술 소비량에 비하면 더더욱 모자라는 것이 사실이다.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술을 즐기는 계층은 책과는 상당히 거리를 두고 살며, 역설적으로 술을 가까이할수록 책을 멀리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나도 와인스쿨과 대학에서 와인과 올바른 음주 문화에 대해 가르치고 있지만 “술을 즐기려면 먼저 책을 가까이 하십시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 사회처럼 대부분의 음주가 낮보다 밤에 이뤄지고 대화나 토론의 도구로서보다 하루를 잊기 위한, 더 나아가 심하게 취해서 평상시에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술과 문명의 상관관계나 음주문화를 논하기는 어렵다.

## 음주의 긍정적인 면 부각시켜

머리말과 8개의 장으로 구성된 《술의 역사》(피에르 푸케 외, 정승희, 한길사)는 술의 역사를 사회문화사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서술했다. 알코올이 최초로 발견돼 치료용·제사용·미사용으로 사용된 배경과 역사상 두차례의 금주령, 즉 7세기 예언자 마호메드가 내린 금주령과 1919년부터 14년간 지속된 미국의 금주령을 다뤘다. 금

주의 금·부정적인 면을 아울러 기술하면서 술을 비판하고 금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풀어놓으면서도 어떻게 경계의 끈을 조일 것인가에 유의하라고 주문한다.

특히 제6장 술 식민주의(Alcoholonialisme)에서는 술제조 선진국들이 술의 공급과 사용을 조작해 무기화함으로써 끼친 폐해를 다뤘다.

작년말에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주세법 개정논란을 볼 때의 느낌을 식민주의와 연관시켜서 본다면 지나친 발상일까. 일본군국주의 시절 생긴 소주와 미군이 이땅에 들어오면서 함께 상륙한 위스키의 세월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주관심사였던 것을 생각하면 정책당국의 정책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해방 이후 50년이 넘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음주를 통한 문화고양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술소비에 따른 세원확대에만 혈안이 돼 있는 ‘신(新)술 식민주의’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알코올의 양이 많을수록 술에 중독될 확률이 높다는 점과 음주의 사회병리적인 현상을 감안한다면 술의 가격에 따른 증가세보다는 알코올의 양에 따른 종량세 세금이 바람직하고, 알코올 도수가 높을수록 누진과세하는 것이 사회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 아닐까.

이 책 머리말에 “술의 역사를 재조명해보는 것은 인류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라는 말이 나온다. 최근 각종 영상매체에 술이 자주 등장하는 것만 봐도 술과 문명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하겠다. 술을 즐기는 나로서는 알코올로그래피(Alcoolographie)라고 표현된 이 책의 제7장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오욕칠정을 평상시보다 높게 끌어올려 인간다움의 극대화된 표현을 가능케 한 술. 심지어는 영화와 만화, 그리고 미디어에까지 영향력을 미친 알코올로그래피야말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느껴왔던, 술이 우리의 일상에서 존재하는 형식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 술의 사회문화적 역할 포괄적으로 다뤄

제8장인 ‘오늘날의 술’에서는 이 책의 원전이 1990년판이라는 한계 때문에 1985년까지의 통계를 근거로 각국의 술 소비량과 알코올 중독의 문제, 술 소비성향의 변화, 최근 알코올의 용도변화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술의 역사를 얘기하며 “술을 통해 이런 이득을 취하려면 우리 몸이 견딜 수 있을 만큼 마셔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로 끝을 맺고 있다.

이 책은 술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사회문화사적인 요소로서 술의 의미를 드러내는데 부분적으로 성공했다. 그러나 서양사 중심이 아니다보니 세계사적인 술의 기록을 남기지 못했다는 점과, 술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제시가 미흡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술에 관한 역사서술에서 제국주의적 관점을 취한 점 또한 그렇다. 그리고 ‘술의 역사’라는 제목에도 불구하고, 술의 역할과 기능에 초점을 맞춰 서술해 세계사의 기본적인 흐름을 읽지 못하는 독자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이 책은 술의 역할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많은 독자들 특히, 개신교 신자들이 술에 대해 가진 편견에서 벗어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